천체가 한군데서 나고 한군데로 드는것임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 17면에서 계속

입니다. 먹는 것도 각계각층이 천차만별로 다자기 먹는 게 따로 있듯이, 곤충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사람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짐승이 먹는 게 따로 있듯이, 모두가 천차만별로 먹고 사는 그 도리를 전체 바다로 비유를 해서 부처님께서는 "바다를 삼키고 토해서 만 중생들한테 각계각층에 먹을 거를 알맞도록 이렇게 내려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두가, 우주 전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대천세계를 아주 작게 정맥 동맥으로 비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한데 합쳐서 정맥 동맥이라고 한다면, 정맥이 없어서도 안 되고 동맥이 없어서도 안 되죠. 정맥 동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정맥은 정맥대로 있고 동맥은 동맥대로 있다 이런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죠? 네. 고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잘 납득이 되실 것 같아서 전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정맥 동맥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번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정맥 동맥 양면이 돌아가지 않으면 몸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맥과 동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름해서 정맥이라는 이름이 있고 동맥이라는 이름이 있느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응용하고 살아라 이거지, 산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이것 따지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마르면 그냥 먹고, 또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가지고, 꽃이 필요하면 꽃을 보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지, 산이 고정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체가 바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우리도 지수화풍이니까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께서 저희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그 한마음 자리에 같이 우리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이 한마음이 되어 거룩한 자유인이 되도록 청주 불자들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하여튼 청주에서도 일컬어지는 분들이 생겨서 모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앞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통신처를 아주 영민하게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만한 어린애들한테도 관법을 집에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거는 재산을 주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보배입니다. 어느 신도 집 아이인데 아버지는 이 공부를 하러 잘 안 오지만 그 학생은 정성이 아주 지극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혈맥이 통하질 못해서 여기가 그냥 수북하게 혹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었죠. "너는 네 뿌리를 믿지?" 그러니까 믿는대요.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지. 저 나무들 봐라." 그래 일러 줬어요. "나무의 뿌리처럼 네 뿌리가 바로 과거에 살던 영원한 너의 친구니까 그것을 믿어라. 바로 과거의 네가 현실의 네 몸뚱이를 형성시켜서 지금 끌고 가는 거니까 진짜로 믿어 봐! 과거의 너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아주 잘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 네 주인공만이, 네 뿌리만이 너를 이끌어서 아주 병도 낫게 하고 피도 잘 돌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해 줬어요. 한마디 딱!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애가 펄펄 뛰면서 왔어요. 그래서 "너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러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늙었든 젊었든 남녀를 막론해 놓고, 재산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못났든 잘났든 그거를 떠나서 하는 공부입니다. 아시겠어요? 못났으면 못난 걸로다가 항상 못난 것이 아니고 잘났으면 잘난 걸로다 항상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잘난 것도 아니고 항상 못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 철 차원이 높아져서 이 한 발을 벗어 놨다면
세세생생 끄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요,
자유스럽게 껄껄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죠.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쥐어짜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넓게 아주 크게 생각하시고 '너만이 네 심부름꾼을,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게 했어도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는 그냥 진짜로 믿고 나가 보세요. 그럼 대성공을 하실 분들이 여기 여러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3(여) 제가 공부하는 도중 의정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철 나왔다가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신령한 의식만 남는다고 했는데 그 의식은 한 점의 불씨로 분리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마음 바다에 그냥 있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꽃씨가 떨어져서 또 꽃이 피고 그러듯이, 연어가 자기 몸뚱이를 형성시켜 놓고 죽듯이, 우리가 자기 껍데기 헌 옷을 벗으면 새 옷을 입고 다시 형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한 찰나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그래서 차원이 높으면 높은 대로 끼리끼리 모이고,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있다 합니다. 그것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지 그 세계가 그대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네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철에 차원이 높아져서 이 한 발을 벗어 놨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을 겁니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요, 자유스럽게 껄껄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죠. 부처님께서도 자유인이시죠.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모두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라고 했고, 둘이 아닌 까닭에 여여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맥 동맥이 막 같이 돌아가니까 즉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느 분 한 분을 가지고 부처라고 했던 게 아니고 여래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를 진짜로 부처로 만드실 수 있다면 됩니다. 지금 금방 말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물었는지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하하…. 아이구 참!

질문자4(남) 큰스님 뵈올 날을 몹시 기다렸었습니다. 저는 약 7, 8개월 전부터 『무』, 『한마음요전』 또 스님 설법지를 읽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공부가 잘되는 것 같고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스님 설법을 들으러 청주에서 금왕까지 밤새도록 걸어가 본 적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얼마나 내 몸의 중생들을 통솔할 수 있나 체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게 좋아서 밤 11시가 넘으면 산책을 하면서 한마음 공부를 하는데 '내 몸이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다.' 라고 주인공에 관해 놓아서 그런지 육신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 주인공이 보호신이 되어 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설법 책을 읽다가도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정말 다 놓았는지, 유생 무생(有生無生)이 한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져서 한밤중에 산에도 가 보고 묘지에도 가 봅니다. 또 TV를 보면서 무심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된 수행인지 아닌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큰스님 그것이 잘못되는 거는, 허약해서 둘로 보면 잘못되는 것이고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 외려 잘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시려고 그런다면, 모습으로 행을 해서 그런 것이나 다가오는 것이나 일체를 다 한군데에다가 놓으시고 한군데서 나오는 줄 아셔야 됩니다. 한 구멍으로 일체를 넣고 한 구멍에서 일체가 나고 그렇다는 거를 아시면 건건이 한군데서 나오고 한군데로 든다 이 소립니다. 결국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놈도 그놈이고 체험을 하게 하는 놈도 그놈입니다. 그게 아직 납득이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한군데로, 한군데로만 하세요. '너만이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어.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깨치게 할 수 있어.' 하는 거요. 모든 거를요. 일체 작은 거든 큰 거든지 다요. 그래야 옛날의 선지식들이 말씀하셨듯이 "바다를 삼키고 바다를 토했노라. 토해서만 중생들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귀를 띄어 주고 또는 눈을 띄어 주고 모든 자비를 베풀어 줬느니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천체가 한군데로 나고 한군데로 드는 것이라는 걸 진짜로 믿고 하세요.

질문자4(남)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 전부터 가톨릭을 믿어 왔습니다. 저는 마음에 닿지 않아서 잘 가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굉장히 열성적이십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몸이 편찮으신데 다른 신앙인들이 편견을 갖고 있듯이 저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천주님이 이름만 다를 뿐 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고 완고하셔서 마음의 문을 닫으시고 기복으로 기도만 하시는데, 제가 한마음 주인공에 관해도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어머니 병환에 차도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한생각으로 아량을 베풀면 나으실 수 있고요, 또 어머니가 생각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둘로 보시니까 그릇이 없어서 담기지 않는 격이죠. 그러니까 병이 낫지를 않죠. 아드님이 아무리 줘도 받질 않으니까요.

내가 전에 외국이나 어디로 나가서 가만히 종교 믿는 거를 봐도요, 모두가 상대를 믿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모두가요. 근데 불교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가 진리거든요. 일체 생명을 불(佛)이라고 하고, 일체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돌아가고 말과 말이 통해서 돌아가고 뜻과 뜻이 통해서 돌아가고 이럭하는 게 교(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개별적인 종교를 불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 천체가, 불교가 진리니까 불교 안에 천체의 종교가 있는 거지 불교가 따로, 머리 깎은 사람만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더러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몸뚱이가 나무라면 그 주처의 뿌리는 어머니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마음속의 그 주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바깥으로 찾지 마세요. 안으로 찾으세요. 주님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 주님만이 내 몸뚱이를 이끌어서 낫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으로 찾으라는 그것만 일러 주세요. 그러면 대번 나아요.

질문자4(남)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뭐라 하시냐 하면 어떻게 천주님이나 하느님을, 여직껏 높으신 데 있는 걸로다 믿고 있었는데 감히 나보고 내 속에 있다고 믿으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너무 황송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높으신 분하고….

큰스님 아이고, 참 내! 그렇게 황송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지 않았느냐고 그러세요. 당신이 없다면 천주가 어딨고 부처가 어딨느냐고요. 당신이 없다면 무효라구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생긴 거고,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부처고 예수고 천주님이고 뭐, 만주님이고 다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난 그래요. 애당초부터, 어려서부터요, '못났든 잘났든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 이렇게 나간 사람이거든요. 하하하….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이 한마음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대로 큰스님을 스승님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가까이서 이렇게 뵈었으니 정식으로 스님께 통신망을 연결하겠습니다.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한마음 내 주십시오.

큰스님 예.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다 항상, 내 모습을 믿지 마시고 내 모습을 찾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보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마음으로써 항상 둘 아니게, 그저 '일체제불' 한다면 스님까지도 첨보됩니다. 여기에 끌어다가 모두 마음으로 둥글려서, 아, 돈 안 드는 마음도 마음대로 못 해요? 둥글려서 하나로 자기 뿌리에다가 그냥 첨보해 놓고선 다 거기다 맡기세요. 아니, 마음을 그렇게 쓰는 데도 돈이 든다면 가난해서 못 한다고 하겠지만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쓰는 데에 무슨 돈이 듭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마음대로 못 해요?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불기 2565년(2021) 신축년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깊은 애정과 물심양면 도움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지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불기 2565년(2021)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년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을 수호하고, 진리의 길로 대중을 이끄는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연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사	T. 02)2004-8216	F. 02)737-0696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제 목
불기2565년(2021년) 신축년 신년 축하광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마감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jabi2018@naver.com

현대불교신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